

계 열 문 항 1

〈가〉

기억과 정체성의 관련성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매우 시의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것은 이 시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고 다시 정립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령 유럽에서는 동서의 경계선이 붕괴되면서 냉전의 기억들로 점철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구권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들이 되살아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언어, 문화, 역사와 신화들이 함께 소생하였다. 당시 이러한 양상은 ‘역사의 귀환’, ‘역사의 소생’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학문적 연구의 의미가 아니라, 생생하게 보존되었거나 새로이 유발된 집단적 기억, 즉 ‘기억된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역사는 예기치 않게 일차적인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성적, 종족적, 정치적 문제에 따라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예학자 테레사 테라우레티스는 정체성을 “자신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자, 그러한 자신의 역사를 담론적으로 증재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는 뜻이다. 기억의 개조는 곧 정체성의 개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나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역사 교과서의 개정, 기념비의 파괴, 공공건물과 지명의 개칭 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나〉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만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되어 버린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는 타자의 기억 저편, 세계의 외부로 내던져지게 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된다.

역사학자 뷔달-나케는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럽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을 ‘기억의 암살자들’이라고 말한다. 타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예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며 휴머니즘을 체현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주의를 칭송한다. 그러나 이것이 부조리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적인 기억에서 배제된 사건들을 부인하고 망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예컨대 베트남 전쟁이다.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단번에 건너뛰며, 1970년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그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현재의 라이언의 모습을 비춘다. 마지막 장면에서 피에 젖어 나부끼는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흘린 피일 따름이다. 미국인으로 인해서 흘린 타자의 피, 타자의 죽음을 영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베트남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

사건의 기억이, 사건의 기억에 매개되어 사건 자체가 타자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외부에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로 이르는 길, 그 회로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건이 언어로 재현된다면, 반드시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사건의 잉여가 있게 된다. 사건의 폭력을 현재형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을 지닐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은 말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건을 체험하였고, 그 사건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폭력을 지금도 계속하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또, 학살 사건처럼 그 폭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자, 즉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폭력,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타자

가 사건을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타자가, 사건의 외부에 있었던 제삼자가 증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 사건을 제멋대로 표상하여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말할 수 없음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다〉

면장 이미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내고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나는 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죠. 칠산리라면 이름 그대로 산이 일곱, 험한 산 일곱이 사방을 둘러막아서…… 예전 난리 땐 빨갱이 소굴이었다고 냉대와 멸시 받던 곳인데…….

장남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자식들 우리는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시다. 우리로선 중대한 문젠입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내가 처음 면장이 되어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사무 인계를 하면서 전임 면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심하게, 이곳 주민들은 과거의 사람일세.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난리 속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솔직히, 난 그것이 싫습시다. 내가 산 사람들의 면장이 아닌, 유령들의 면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장남 (우울한 표정이 되며) 사실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도 기분 좋을 리 없죠. 특히 우리들은요. 아무리 현재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과거는 우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군요.

면장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당신들이 과거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놓아버리세요! 칠산리의 그 무덤 옮기는 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남 우린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시다. 면장님, 우리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 합니다.

면장 당신이 기다리는 그가 꼭 와야 할 이유가 뭐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칠산리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장남 글썩요…….

면장 누가 나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장남 누가 나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면장 사실이나구 나에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대답할 문제죠!

장남 글썩요……. 우리들 사상이 위험하다는 혐의를 받는 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억들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우리 잘못은 아녜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면장님 입장이 어떻다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칠산리에 길을 내야 하구, 그러려면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면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칠산리 주민들 모두의 희망인데, 그것은 칠산리로부터 우리들 흔적을 깨끗하게 제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 ‘기억’의 문제에 대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논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2

〈가〉

같은 단어를 같은 검색창에 검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필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본다.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추론한다. '예측 엔진'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고유한 정보의 바다를 만든다.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내용은 걸러지고,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내용만이 먼저 표시된다. 어느 기업은 당신이 어떤 기사를 주로 읽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긍정적인 면에서 당신의 기호에 맞춘 광고를 띄워줄 수도 있다. 필터링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당신은 엄청난 분량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기업에게 넘기는 셈이 된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것저것에 써보면서 매일 매일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매체만 즐겨 찾았고, 나머지는 도외시해왔다. 개별화된 필터가 이렇게 강력한 유혹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 매일 90만 개의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5천만 개의 트위터 글이 올라오고, 6천만 개의 페이스북 계정이 업데이트되며, 2,100억 개의 이메일이 오고간다.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인류의 의사 전달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면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지금 우리는 단 이틀 만에 그 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전문가인 스티브 루벨이 ‘주의력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을 불가피하게 불러온다. 거리가 멀고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통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다 챙길 수는 없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이메일로 동영상으로 옮겨 다닌다. 온종일 밀물처럼 밀려드는 정보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때 개별화 필터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개별화 필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거쳐 선별되어 제공되는 온갖 선명한 사진이나 생생한 동영상은 개인들에게 또렷하게 인지되기 십상이다.

〈나〉

“그는 매일 담배를 세 갑씩이나 피웠는데도 나이가 백 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가 될 수 없다.”, “함부르크는 안전한 도시다. 나는 블랑케제네(독일 함부르크의 한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휴가를 떠날 때조차 대문을 열어놓고 다닌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담배가 수명과 상관이 없다거나 함부르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일어 단어들 가운데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아니면 R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정답은 ‘R로 끝나는 단어가 두 배는 더 많다.’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은 자신의 경험 혹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더 잘 떠오른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보편적인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카드를 머릿속에 삽입한 채 세상을 돌아다닌다. 비행기 추락, 자동차 사고, 살인과 같은 죽음의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당뇨병이나 위암같이 덜 주목받는 죽음의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이나 폭탄 테러에 의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죽음은 훨씬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고,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개연성을 부여한다.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것이 뇌리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기업체의 이사회 사무실 안락의자에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벌레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모인 이사들은 4분기 실적표나 프로젝트 성과분석표 등 경영진이 제시한 숫자들을 보며 토론한다. 경영진에서 보여주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경쟁자들의 강점이나 근로자들의 근무 동기 약화 또는 고객들의 태도 변화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나 처방들을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용한다. 그래서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다〉

로마교황청은 성인(聖人)을 승인하는 시성식(諡聖式)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이도록 했는데, 찬성하는 쪽은 '신의 지지자', 반대하는 쪽은 '악마의 변호인'이라 했다. 악마의 변호인은 교황청이 부여한 역할이기에 자신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임무의 성격상 '신앙의 촉진자'로 불리기도 했다.

초창기 1,000여 년간 교회의 성인 추대는 다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 분권화되어 있었다. 지역교회에서 대중적 정서를 기반으로 성인 추대가 가능했는데, 순교자, 신앙에 헌신한 인물, 그리고 특별히 독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정받는 인물에게도 성인의 직위를 내렸다. 그 결과 각 지역마다 성인의 수가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성인 후보 측에서 제출한 내용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었다. 이에 다수 교회 관료들은 독립적인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성인 추대에 반대 의견을 밝힐 사람을 지명했다.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들의德行과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은 사기나 우연 혹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설파하여 반대자 역할을 수행했다. 추대를 위해 제출된 모든 근거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근거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변호인은 수십 년간 계속되기도 하는 시성 절차 기간 동안 반대 의견과 입증 자료를 작성하여 교황청에 제출하는데, 성인 추대가 최종 결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교황에게 보고되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추대된 성인들은 그 이전에 추대된 성인들에 비해 실제 숫자는 적어졌지만, 더 권위를 가진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2. 〈가〉의 상황이 〈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다〉를 활용하여 〈가〉와 〈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00±100자)